

선학원은 일제 불교정책 반대 위한 위장명칭이었다

일제하에서 한국불교를 지켜온 선학원(禪學院)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무심코 쓰는 일본어가 상당히 많다. 배워서 쓰는 것도 있지만 일상에서 파고들어와 무의식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많다. 40여년에 이르는 일제강점기의 영향이다. 요즘도 8·15 광복절이 되면 특집으로 방영되는 다양한 식민지 모습에서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불행한 과거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한국 역사에서 일제강점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있고 그로 인해 고통을 받는 현재 진행형이다.

일제강점기 모든 분야가 그들의 통제를 받았던 것처럼 불교 역시 예외일 수 없었다. 오히려 불교는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신앙하던 종교였기 때문에 일제가 한국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이용했다. 합방 이후에는 한국불교를 통제해 식민지정책에 활용했다. 이때 들어온 일본불교는 한국불교의 전통을 변질시키는 원인이 됐다. 그런 통제와 변질 속에서 드러내 놓고 저항할 수 없어도 묵묵히 자신의 수행을 지키면서 전통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것이 선학원이다.

지금 서울 강북은 북촌이 유행이다. 강남의 화려한 분위기와 달리 전통가옥과 어린 시절 살아보지 못한 골목길이 뜨고 있다. 선학원은 그 북촌 가운데 있다. 안국역 1번 출구로 나와 북쪽으로 가다보면 덕성여고 옆으로 사람이 나온다. 중앙선학원이란 현판이 붙어 있어 선을 수행하던 곳을 알 수 있다. 이곳은 원래 1910년 설립된 원종이 일본 조동종과 어이없는 맹약을 체결하자 이에 반대한 생김 일제종의 서울 포교당이었다. 1912년 일제종 사무소가 범어사로 옮기면서 동래 초량 대구 서울 등 네 곳에 일제종 포교당을 세웠다. 1912년 6월 총독부에 의해 원종과 일제종이 해체되면서 범어사 서울 포교당으로 사용됐다. 그 후 1921년 선학원이 설립되면서 일제에 저항하는 중심지가 된 것이다.

1910년 8월 강제로 합방한 일제는 불교를 식민지 통치에 이용하기 위해 법령을 제정했다. 그것이 1911년 6월 3일 제령 7호의 사찰령이다. 이후 총독부는 7월 8일 전문 8조로 된 사찰령시행규칙이 제정돼 그해 9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시행규칙에 의해 한국불교를 30본산으로 구분했다. 이때 정해진 30본산의 주지는 총독의 승인을 얻어서 취임하며 본말사법에 의해 각 말사를 관할하도록 됐다. 이 법령으로 인해 일제는 사찰의 억압 폐합 이전 재정의 처분 등 각가지 규제로 한국불교를 통제할 수 있었다.

총독부가 사찰령 다음으로 제정한 법령은 1915년 8월 16일부터 시행된 총독부령 제83호의 포교규칙이다. 전문 19조로 된 이 법령은 신도, 불교, 기독교 등 주요 종교에 대한 포교를 간섭했다. 이로 인해 포교하는 사람과 건물은 일제의 허락을 얻어야만 활동과 활용이 가능했다.

일제의 이런 통제로 한국불교의 전통의례는 점점 축소되거나 폐지됐다. 그 자리를 일본불교 의례가



선학원 설립을 주도한 만공 스님

들어오면서 전에 없던 행사가 나타나게 됐다. 이런 분위기 탓에 한국불교의 종지와 종풍을 유지하는 일은 매우 어려웠다. 자연히 각 본산에 있던 선원이 폐지되면서 선풍이 쇠락해졌다. 1913년 30본산 연합회에서 조사한 각 본말사의 선원은 고작 72개로 이 숫자는 일제 말기까지 별다른 증가없이 계속됐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의식 있는 불교인들이 1921년 11월 불조(佛祖)의 정맥(正脈)을 계승한다는 취지아래 선종의 중앙기관을 설립했다. 처음부터 일제의 불교정책에 반대해 이듬해 〇〇寺 대신 선학원이라는 위장 칭호를 썼다. 민족적 성향이 강한 인물들이 참여한 관계로 활동 역시 민족불교의 이념을 계승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선학원이 창설 직후 실행한 것은 선종의 진좌와 전국 수좌들의 수행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선우공제회(禪友公濟會) 조직이었다. 공제회는 본부를 선학원에 두고 중앙조직과 지방 선원을 예하 조직으로 해 각종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선원을 건립해 수행 남자들의 수행 여건이 좋아지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당시 선학원에 등록된 선원은 지부로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었으며, 수행자들은 회원으로 등록하고 회원증을 발부받았다. 선학원은 법회를 개최해 수선(修禪)에 필요한 기본을 교육하는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일제의 비호를 받는 30본산과 달리 재정적 뒷받침이 없던 선우공제회는 의욕과 달리 창설 직후



1941년 개최된 고승수양법회(유교법회)

(사진제공=민족사)

일제강점기 불교도 식민지 정책에 활용하자 일본불교로부터 한국불교 지켜낸 선학원 만공·혜월·한암 등 선지식들 종정 말고 '조선불교선종총현' 등 통한 정체성 확립해

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1926년 5월부터 범어사 포교당으로 변경되면서 침체에 빠졌다.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킨 것이 김적음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의술을 활용해 1931년 선학원을 재건했다.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단법인을 설립해 수좌들은 물론 일반 신도들이 참신할 수 있도록 했다. 그것이 1934년 12월 5일 인가받은 조선불교선리참구원(朝鮮佛敎禪理參究院)이다.

법인을 설립한 후 수행자의 단합을 위해 1935년 3월 수좌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에서 선학원은 한국불교의 구심점이 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했다. 먼저 중앙선원 설치 건의안을 교무원에 제출했으며, 선리참구원의 확장과 선종종규의 제정, 기타 각종 규약을 제정했다. 그리고 만공(滿空)·혜월(慧月)·한암(漢岩)을 종정으로 선출해 수행풍토를 강화했다. 또한 한국불교의 선종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수행자의 수행지침이 되는 '조선불교선종총현'을 마련했다. 이 총현은 1934년 12월 30일 통과돼 종정의 인가를 받았으며, 1935년 1월 5일 선종의 종

현으로 공포됐다. 이때부터 선학원은 사업집행기관의 성격의 띤 종무원을 두고 전국 선원을 결집하는 중앙선원의 위상을 지닐 수 있었다.

이런 선학원의 활동은 여러 면에서 한국불교를 근대화 시키는데 기여했다. 먼저 기존 불교계와 다른 운영의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해 행정체계를 조직화했다. 당시 선학원의 조직체계는 중앙에 본부를 두고 범어사 직지사 장안사 석왕사 등 20개의 사찰을 지부로 두었다. 그리고 중앙에는 원활한 종무행정과 소기의 목적을 위해 서무부 재무부 수도부 3부를 두었다. 그리고 공제회의 사무에서 회원들의 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사찰에서 선출된 20명의 평의원 회의에서 결정했다.

다음 주목할 만한 것은 운영에 있어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었다. 당시 선우공제회가 정한 유지방침을 보면 선우(禪友)의 의연금 및 회사금으로 총당하고, 각 지부 선량(禪糧) 가운데 2할과 매년 예산 가운데 잉여금을 저축해 공제회의 기본재산으로 설정해 각 선원을 진흥했다. 또한 공제회 재산의 수치 총액 예산, 결산과 같이 재정적 운영에 관한 사항은 모두 평의원의 1/2 이상 의결로 집행했다.

마지막으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지도부를 선출한 점도 선구적인 면이다. 선학원 지도부 교체는 임의적인 변경이 아니라 총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것은 선학원에 동참하는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일로 이 방식에 의해 설립 당시 중추적 역할을 했던 인물들도 자연스럽게 교체됐다.

한국불교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한 선학원이었지만 일제의 강압을 전부 피해가지는 못했다. 1937년 8월 위문금을 납부한 것을 시작으로 전쟁에 출동하는 부대를 송영(送迎)하는 일, 군인가족과 전사자의 위로 등 일제의 의도에 따라 수밖에 없었다. 모두가 식민지 불교의 한계였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에서도 한국불교 전통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은 계속됐다. 선리참구원은 1939년 조선불교선종정기선회를 개최해 금강산 마하연을 모범 선원으로 지정해 처음 불문에 들어오는 수행자를 지도할 것과, 정정비구를 위한 모범 총림으로 지리산 가야산 오대산 금강산 묘향산 등 5개산을 지정하려는 교섭위원을 정했다. 그 외에도 수좌들의 상호 친목 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해 선종의 진좌에 힘을 기울였다.

1941년 3월에는 한국불교의 전통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승수양법회를 개최했다. 이 법회는 당시의 고승 대부분이 참가해 선학과 계율의 종지를 지키기 위한 설법을 했다. 고승수양법회 이후 선학원은 불교계에 지계와 수행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범행단(梵行團)을 조직했다. 여기에 참여한 수행자는 선학과 계율의 종지를 실천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일제 치하 한국불교 전통을 지키려는 의도가 강할 수밖에 없었다.



김경집/전각대 교수

공양 올리는 마음

법정 스님은 왜 혜충 스님을 복 받을 스님이라 하셨을까?

혜충 지음 | 344면 | 13,000원

조계종 5대 포교원장 혜충 스님이 5년간의 임기를 마치며 펴낸 밝고 따스한 법문집

진아眞我 만나기 워크북

나를 치유하는 마음여행

혜충 지음 | 160면 | 12,000원

독자에게 조근조근 이야기 해 주시는 듯한 법문의 재미와 감동. 다양하고 풍부한 예화 속에서 건진 깨달음은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 스님을 닮고 싶고, 스님 말씀대로 실천한다면 이 몸 그대로 부처가 될 것 같은 책이다.

불교의 핵심교리인 유식 30송과 현대심리학을 토대로 개발한 진아 만나기 프로그램 워크북

경향, 내일신문 등 언론사 집중 조명!

92 불교문화연구소 Tel. (02) 420-3200 Fax. (02) 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 www.facebook.com / bulkwang